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79호 [국제 제25322호] 주제 105 (2016)년 6월 27일 (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절세위인들을 높이 우러러모시며 사회와 집단을 위해 좋은 일을 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영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절세위인들을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며 사회와 집단을 위해 좋은 일을 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보내시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절세의 신념을 간직하고 평양시인민위원회 신하단위 소장 직책으로는 금수산태양궁전지구를 통솔하며 모시게 온갖 지성을 다하였으며 수도의 혁명사적지를 원상보존하는 사업도 훌륭히 완수하였습니다.

평양의 국제대학 교원 리남혁은 민중대학원사적편과 불회혁명박물관을 정정해 판권하기 위해 헌신하면서 천출위인들의 영상사적문물을 더 빛내고 정중하게 모시는 사업에 순결한 맘을 바치었고 특유영예군인의 생활도 친혈육의 정으로 따뜻이 보살펴주었다.

위대한 수령님들과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력사와 명도업적을

유교수하는 집에 광천 삶의 자취를 새겨갈 일념에 직판봉장직지도록 지장 김정은은 수도의 혁명사적지들에 여러차례에 걸쳐 많은 차례들을 지원하는 훌륭한 소행을 발휘하시었다.

지난 기간 절세위인들을 높이 우러러모시기를 위한 좋은 일을 많이 하여온 평양시인민위원회 신하단위 소장 직책으로 김정은 동지께서는 절세위인들을 높이 우러러모시며 사회와 집단을 위해 좋은 일을 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보내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절세위인들을 높이 우러러모시며 사회와 집단을 위해 좋은 일을 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보내시었다.

수령명령위원의 새로운 장을 펼쳐 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승고한 도덕의리의 세계를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조선로동당발전은 영원 부원 비호주도 인류의 대양을 높이 보신 태극강을 수없이 찾아 총정의 자욱을 새겨가셨다.

평양안경상점 부지배인 신우명호, 부원 직원은 절세위인들의 동상을 정중히 모시고 혁명업적을 깊이 빛내이는 사업에서 모범을 보였으며 미래과학자거리의 비록하여 당의 구성을 위하여 일하시는 중요대상전설도 적극 지원하셨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보내신 감사를 크나큰 적성속에 받아안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매우산천출위인들을 헌신감에 높이 우러러모시며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좋은 일을 더 많이 찾아갈 열의에 넘쳐나셨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주재 조선의 국기발령의 일대 파시던 지상대 지상중거리전력탄도포에 《화성-10》시행발사 시험에서 지도하신 소식을 23일 세계언론들이 광범위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파스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명도자께서 지상대 지상중거리전력탄도포에 《화성-10》의 성공적인 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하셨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께서는 이번 시험발사가 주재조선의 광복을 위한 위력을 다스려 주시며 파시던 일대 장지로 된다고 말씀하시었다.

김정은명도자께서는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항시적인 위협으로부터 조국과 인민의 안전을 확고히 담보하여야 한다는 공적수단을 거쳐야 한다고 하시면서 선제공격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강화해나가는 다양한 전략공작기구를 계속 연구개발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시험발사참가자들에게 따뜻한 격려를 주셨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화성-10》 시험발사 시험에서 지도하셨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미국 AP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북조선의 김정은명도자께서 위대한 실험중거리탄도포 《미사일》 시험의 성공을 축하하시었다.

그이께서는 발사를 지켜보신 후 북조선이 《태평양안전지대》의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을 상대로 《화성-10》시행발사 시험을 진행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그이께서는 미국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선제공격능력을 확대강화해나가는 전략공작기구를 계속 개발할 것을 강조하시었다.

로씨야의 피아 노보소르통신, 인터넷뉴스통신, 신문통신 《이즈베스티아》, 《모스콥스키 콤포스레트》, 《아르메니아 피아》, 《브즈갈라트》, 《올라지보르스크》, 연방TV방송, 연방레벨TV방송, 인터넷뉴스통신인 루스반트, 예르페라, 뉴스루, 폼, 인터넷TV 《미르 24》, 중국의 홍콩 방송 위성 TV 방송, 신화망, 환구망, 인터넷의 유엔아이통신, 인터넷-아시아통신, 신문통신 《인투》, 《스테이츠맨》, 《인투스판 타임스》, 《아세안 에이리》, 지 뉴스TV 방송, NDTV 방송, 일본의 지지통신, 《니혼게이 지 사인》, 《도쿄 신보》, NHK 방송, 오스트리아의 ABC 방송, 벨기에의 포스트통신, 신문 《뉴스, 세계》, 영국의 BBC 방송, 미국의 UPI 통신도 《김정은위원장 《화성-10》 시험발사 시험에서 지상대 지상중거리탄도포 《미사일》 시험의 성공을 축하하시었다.

그이께서는 발사를 지켜보신 후 북조선이 《태평양안전지대》의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을 상대로 《화성-10》시행발사 시험을 진행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그이께서는 미국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선제공격능력을 확대강화해나가는 전략공작기구를 계속 개발할 것을 강조하시었다.

로씨야의 피아 노보소르통신, 인터넷뉴스통신, 신문통신 《이즈베스티아》, 《모스콥스키 콤포스레트》, 《아르메니아 피아》, 《브즈갈라트》, 《올라지보르스크》, 연방TV방송, 연방레벨TV방송, 인터넷뉴스통신인 루스반트, 예르페라, 뉴스루, 폼, 인터넷TV 《미르 24》, 중국의 홍콩 방송 위성 TV 방송, 신화망, 환구망, 인터넷의 유엔아이통신, 인터넷-아시아통신, 신문통신 《인투》, 《스테이츠맨》, 《인투스판 타임스》, 《아세안 에이리》, 지 뉴스TV 방송, NDTV 방송, 일본의 지지통신, 《니혼게이 지 사인》, 《도쿄 신보》, NHK 방송, 오스트리아의 ABC 방송, 벨기에의 포스트통신, 신문 《뉴스, 세계》, 영국의 BBC 방송, 미국의 UPI 통신도 《김정은위원장 《화성-10》 시험발사 시험에서 지상대 지상중거리탄도포 《미사일》 시험의 성공을 축하하시었다.

그이께서는 발사를 지켜보신 후 북조선이 《태평양안전지대》의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을 상대로 《화성-10》시행발사 시험을 진행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그이께서는 미국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선제공격능력을 확대강화해나가는 전략공작기구를 계속 개발할 것을 강조하시었다.

로씨야의 피아 노보소르통신, 인터넷뉴스통신, 신문통신 《이즈베스티아》, 《모스콥스키 콤포스레트》, 《아르메니아 피아》, 《브즈갈라트》, 《올라지보르스크》, 연방TV방송, 연방레벨TV방송, 인터넷뉴스통신인 루스반트, 예르페라, 뉴스루, 폼, 인터넷TV 《미르 24》, 중국의 홍콩 방송 위성 TV 방송, 신화망, 환구망, 인터넷의 유엔아이통신, 인터넷-아시아통신, 신문통신 《인투》, 《스테이츠맨》, 《인투스판 타임스》, 《아세안 에이리》, 지 뉴스TV 방송, NDTV 방송, 일본의 지지통신, 《니혼게이 지 사인》, 《도쿄 신보》, NHK 방송, 오스트리아의 ABC 방송, 벨기에의 포스트통신, 신문 《뉴스, 세계》, 영국의 BBC 방송, 미국의 UPI 통신도 《김정은위원장 《화성-10》 시험발사 시험에서 지상대 지상중거리탄도포 《미사일》 시험의 성공을 축하하시었다.

그이께서는 발사를 지켜보신 후 북조선이 《태평양안전지대》의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을 상대로 《화성-10》시행발사 시험을 진행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그이께서는 미국의 위협에 대처할

주체조선의 국방력을 과시한 궁지안고 200일전투에서 비약적성과를!

200일전투장에서 보내온 소식 자체의 힘과 기술로 이룩한 또 하나의 성과 레성강청년 5호발전소건설 적극 추진

은 나라 천만군이 당 제7차 대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총정의 200일전투를 힘있게 벌이고있는 속세 개천지구관합업기업소 공사설비부속품공장에서 또 하나의 자랑찬 창조물이 태어났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자강적제일주의는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주체적력을 강화하고 자기 의 앞길을 개척해나가는 혁명정신입니다.》

공장의 기술자들과 노동자들, 일군들이 이틀동안 4.5㎞급 압축기를 우리의 원료, 우리의 자재에 의거하여 100% 공장자체의 기술로 개발하는데 성공하였다.

우리 나라 탄광, 광산들의 구체적인 작업환경에 맞게 설계되고 제작된 원형 공기압축기는 종전의 10㎞급 공기압축기보다 작업시 한대를 가동시킬 때에 비해 전력이 1/3이며 다른 나라의 것보다 1.8배이상 오래고 견고한 기술특성을 가지고있다.

개천지구관합업기업소 공사설비부속품공장에서 이 동식공기압축기 개발, 계열생산준비 활발

다. 뿐만아니라 압축기를 전지하는 막장에 부단히 점검시공을 하므로 배관을 비롯한 많은 자재의 로비를 절약하면서 공업성과를 확대할 수 있는 담보가 마련되었다.

연합기업소당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난 2월부터 공장에서서는 탄광들의 구체적인 작업환경에 맞게 압축기를 자체로 개발하여 수입형에 응지부를 찍기 위한 무형이 힘차게 벌어졌다.

지난 기간 중요생산지표인 파장설비부속품을 생산하는 파장에 공장은 압축기를 비롯한 탄광설비들의 부속품들을 마음껏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공업적조도가 훌륭히 마련되었다.

특히 우리의 원료에 기초한 주체개발을 연구개발하여 용선로를 비롯한 선전주물공생산방법을 확립하고 지체를 비롯한 각종 부속품제작을 위한 충분한 기술적조도를 갖춘 공업기술집

단은 압축기개발목표를 단숨에 점령할 수 있다는 튼튼한 배심을 안고 전투에 달려나갔다.

공업시험실 실장 김형철동무를 비롯한 기술자들은 우리 나라 탄광들의 구체적인 작업환경과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 압축기의 부족점을 종합분석한대 기초하여 주입식으로 되어있던 프랑크속은활장치를 프랑크식으로 전환하고 정장기설계와 제작을 우리 영철, 김광학, 김영준동무, 주물작업단의 박수철, 김광철동무들은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쳐 높은 정밀도를 보장하면서 선미체 작업무를 힘있게 벌였다.

연합기업소 당, 행정직일군들이 수시로 공장에 내려와 우리 식 압축기개발전투에 열차나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연식이 전력생산량을 늘리는 것은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서 사회적인 문제로 나타나고있습니다.》

레성강청년 5호발전소 건설지대에 총정의 200일전투를 힘있게 벌이며 발전소건설에서 면밀히 기획과 혁신을 창조해나가고있다.

발전소건설에서 큰 몫을 맡고있는 개성시립대의 일군들과 전투원들이 무뎠지는 예로와 난관을 자체로 뚫고나가면서 공사속도를 높이고있다.

개성시립대위원회의 지도밑에 리광일, 리석태, 박명남동무를 비롯한 리광일, 리석태, 박명남 동무들은 이들을 헌신적인 투쟁으로 그대로 프로그래밍속도로 이어지고있다. 대대의 동력대원들은 철근공사에 비롯한 모든 임무를 수행에서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고있다.

동력부서와 물고기건설공사를 맡은 제2대대의 일군들과 동력대원들은 200일전투에서 또

다시 영예로운 승리가 될 줄 아는 마음과 발전소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수문기타부속품을 맡은 제1, 3대대의 일군들과 전투원들은 건설속도를 높일수 있는 합리적인 작업방법들을 적극 찾아내놓고 설비들의 만가공을 보장하여 공사의 속도와 질을 다같이 높이고있다. 홍명철, 홍정호동무를 비롯한 대대의 일군들은 장마철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전투조직을 짜고들어 매일 계획을 120%이상 해내고있다.

제5대대의 전투원들을 위를 조망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공사 전기간 계기되는 위험조치를 전적으로 맡아 수행해온 이들의 헌신적인 투쟁으로 그대로 프로그래밍속도로 이어지고있다. 대대의 동력대원들은 철근공사에 비롯한 모든 임무를 수행에서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고있다.

동력부서와 물고기건설공사를 맡은 제2대대의 일군들과 동력대원들은 200일전투에서 또

다시 영예로운 승리가 될 줄 아는 마음과 발전소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수문기타부속품을 맡은 제1, 3대대의 일군들과 전투원들은 건설속도를 높일수 있는 합리적인 작업방법들을 적극 찾아내놓고 설비들의 만가공을 보장하여 공사의 속도와 질을 다같이 높이고있다. 홍명철, 홍정호동무를 비롯한 대대의 일군들은 장마철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전투조직을 짜고들어 매일 계획을 120%이상 해내고있다.

제5대대의 전투원들을 위를 조망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공사 전기간 계기되는 위험조치를 전적으로 맡아 수행해온 이들의 헌신적인 투쟁으로 그대로 프로그래밍속도로 이어지고있다. 대대의 동력대원들은 철근공사에 비롯한 모든 임무를 수행에서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고있다.

동력부서와 물고기건설공사를 맡은 제2대대의 일군들과 동력대원들은 200일전투에서 또

다시 영예로운 승리가 될 줄 아는 마음과 발전소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수문기타부속품을 맡은 제1, 3대대의 일군들과 전투원들은 건설속도를 높일수 있는 합리적인 작업방법들을 적극 찾아내놓고 설비들의 만가공을 보장하여 공사의 속도와 질을 다같이 높이고있다. 홍명철, 홍정호동무를 비롯한 대대의 일군들은 장마철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전투조직을 짜고들어 매일 계획을 120%이상 해내고있다.

제5대대의 전투원들을 위를 조망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공사 전기간 계기되는 위험조치를 전적으로 맡아 수행해온 이들의 헌신적인 투쟁으로 그대로 프로그래밍속도로 이어지고있다. 대대의 동력대원들은 철근공사에 비롯한 모든 임무를 수행에서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고있다.

동력부서와 물고기건설공사를 맡은 제2대대의 일군들과 동력대원들은 200일전투에서 또

철산봉에 총공격전의 기상 내려친다

무산 광산 연합 기업소에서

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전투적업무를 높이 받들고 무산합업기업소의 동맹기업이 총공격전의 불길에 세차게 지쳐올리고있다.

중환된 자로에 의거한 무산의 로동계는 200일전투에서 출현한 첫날부터 드세한 공격전을 벌이며 높이 세운 전투계획을 매일 1.2배이상 넘쳐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전체 담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당에 대한 불타는 충정과 비상한 애국열의를 안고 총력기여하여 세기를 주름잡으며 최후승리를 향하여 내달리는 조선의 기상과 본모습을 힘있게 과시하여야 합니다.》

연합기업소당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일군들과 노동자들, 기술자들은 대항전투형과세기들의 정상운영에 박도차피속도와 절정생산실적이 파우친다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설비들을 애호관리하고 기술력신인들을 받아들여 대항전투형과세기들을 만부하로 돌리고있다.

콘베어벨트와 체커리크리저에서는 교대가 교대를 줄이는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면서 1300m장터벨트콘베어와 장터벨트콘베어 《가》, 《나》 선운영을 정상화하고있다. 그리하여 조판은민속도와 기계적리능력을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훨씬 높이고있다.

로선분광산의 일군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은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속에서도 최선적합성기술의 만가공을 보장하고 합리적인 방법법들을 받아들여 계획보다 많은 양의 최종을 생산하고있다.

운광사업소의 운전사들은 자점수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교대별사회주의경쟁을 벌이며 매일 수송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연합기업소의 노동자들은 생산장정의 가장 큰 예비는 과학기술에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대동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차수리분광에서는 자체로 여러가지 부속품을 생산하여 대형화물자동차들의 만가공을 보장하고있으며 전직직업에서는 원수형과세기의 푸신이발원추치차를 직선이발원추치차로 개조하여 마세기들의 정상가동에 기여하고있다.

공부분광에서는 종전보다 현대적인 공작기계를 갖추어 놓고 정밀도의 질을 훨씬 높이고있으며 차수리분광에서는 동력대를 조직하고 철야전투를 벌여 대형화물자동차들을 제때에 수리하고있다.

공부분광에서는 조선의 달아박기를 진행하며 매일 전투계획을 150%이상 넘쳐수행하고있으며 불분광에서는 작

장마철생산대책을 빈틈없이 천내지구관합기업소에서

연합기업소당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일군들과 노동자들, 기술자들은 대항전투형과세기들의 정상운영에 박도차피속도와 절정생산실적이 파우친다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설비들을 애호관리하고 기술력신인들을 받아들여 대항전투형과세기들을 만부하로 돌리고있다.

콘베어벨트와 체커리크리저에서는 교대가 교대를 줄이는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면서 1300m장터벨트콘베어와 장터벨트콘베어 《가》, 《나》 선운영을 정상화하고있다. 그리하여 조판은민속도와 기계적리능력을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훨씬 높이고있다.

로선분광산의 일군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은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속에서도 최선적합성기술의 만가공을 보장하고있으며 전직직업에서는 원수형과세기의 푸신이발원추치차를 직선이발원추치차로 개조하여 마세기들의 정상가동에 기여하고있다.

공부분광에서는 종전보다 현대적인 공작기계를 갖추어 놓고 정밀도의 질을 훨씬 높이고있으며 차수리분광에서는 동력대를 조직하고 철야전투를 벌여 대형화물자동차들을 제때에 수리하고있다.

공부분광에서는 조선의 달아박기를 진행하며 매일 전투계획을 150%이상 넘쳐수행하고있으며 불분광에서는 작



여러 가지 농작물이 큰피해를 받지 않도록 빈틈없는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다. -백천군 운산협동농장에서- 본사기자 김준은 특필

자력자강의 정신과 과학기술위력으로 지퍼올리는 만리마속도창조운동의 불길

단천 지구 광업 총국 아래 광산, 공장 들에서

더 높은 목표를 내세운 자강력의 강자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자력자강의 정신을 가져야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뚫고 나갈 수 있으며 최악의 조건에서도 최상의 성과를 이룩할 수 있습니다.》

70일전투를 통하여 자력자강의 강자들이 역세제 성장한 검덕광업연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의 돌파구를 열어제끼기 위한 200일전투를 파격히 벌려나가고 있다.

70일전투때보다 1.5배나 더 높은 생산목표!

검덕광업연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투쟁

간단한 목표가 아니다. 그러나 절박의 로동계급은 산악같이 펼쳐나갔다. 막아서는 애로와 난관이 한우가지가 아닌 불리한 조건에서도 높이 세운 전투목표를 기어이 점령하기 위한 총공격전인 심부와 상부지구 생산, 광물과 선광장들에서 맹렬히 벌어지고 있다.

중신의 물고기와, 열제끼기 위한 기본고리를 로슨생의 다량채굴, 다량광광에서 찾은 연합기업소의 책임일군들이 현장을 마고앉아 단번에 1만톤의 광량을

점령하기 위한 총공격을 펼쳤다.

심부지구 생산, 광물의 승격심 또한 간단치 않다. 점령전의 광부들이 여러가지 정황에 따르는 새로운 채굴법을 창안 도입하면서 배일 높이 내세운 일제계획을 어جز없이 수행하며 합작적 전진해나갈 때 광물 생산 여러 소대에서는 채굴과 채광작업을 동시에 맡아 해제끼며 생산속도를 높여가고 있다. 며칠전 장정실사업소 최영철 일군소에서는 부선계통제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70일전투기간 11가지의 가지있는 기술혁신으로 생산의 돌파구를 열어제끼고 2선광장에서도 일제적인 부선계통제 도입을 완성하여 연합기업소적인 주목을 끌고 있다.

년간 많은 전력을 절약할 수 있는 이 계조인은 불리한 전력 조건에서도 전동기를 보호하고 부선계통제 도입을 진행할 수 있는 경제적인 대안이다.

자기 힘을 굳게 믿고 담이 제시한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200일전투에 파격히 펼쳐나간 이들이기에 승리에 대한 신심은 확고하고 배심은 든든한 것이다.



비약의 기상 약동하는 옥돌생산기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정제강국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여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새 로운 전향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단천시내에서부터 가리키며 끝이 떨어지지 않는 광부들의 열의와 열정을 보여주는 옥돌생산기지의 미고대사이 트박생산지지가 자리잡고 있다. 이곳에 유망한 옥돌생산기지인 광부들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못했었다.

별로 소문없던 이 광산에서 200일전투의 첫날 목표를 열흘이나 앞당겨 수행하는 첫 승전보성이 울렸다.

20일전투 첫날 옥돌생산목표 1.2배로 수행, 기본공진과 준비공진을 각각 117%, 210%로 완수!

시범도 일로도 달려갔다. 일군들의 일선에서부터 달랐다. 경, 막장들에 전파피리를 차지한 일군들이 생산자들의 정신력을 불려일으키기 위한 사상사

한치의 느림도 없이 완벽하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경제강국 건설에 박차를 가하여 국가의 중요기술부문에서 선진국과 어깨를 겨룬다.》

어느날 이상히 놀이 내세운 200일전투목표수행을 위한 돌파구를 힘있게 열어제끼고 열의에 대항쟁광산 건설을 기세있게 밀고나간 일군들 중 한사람은 뜻밖의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다. 곧은 암반층

광 광 산 에 서

이 막아나선데다가 착암기마저 멈춰서는 형편이었다.

즉시 현장에서는 난관을 타개하기 위한 협의회가 열렸다.

《조건을 논하던 시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위대한 수행자들의 용용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무조건 끝까지 결사판결하겠다는 정신만 있으면 그 어떤 최악의 조건에서도 최상의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불리한 조건에서도 신심에 불어 광산의 전진사업을 주도해 나가는 지배인의 모습은 생산자들에게 언제나 큰 힘이 되었다.

광산당위원장 한희락동무는 당일군들을 총괄하여 현장 지원과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주었고 대항쟁광산에서의 경제선봉도 참신하게 조직하였다.

고대법, 시간별 교차생산을 위한 조직사업이 진행되었다. 경영관리를 더욱 짜고박히 압축기장마다 발달된기를 높여주는 대책을 주시에 세워 어떤 경우에도 생산과 공진을 멈추지 않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광산의 기술일군들을 광대한 압축기장조전투가 현상에서 힘있게 벌어졌다. 생산자들의 작업조건과 설비들의 개선대책 등을 제때에 세워주는 조직사업이 따라서는 없애야 하지 않겠는가.

금산광 광부들은 200일전투목표로 내세웠던 대형 3호

과학의 힘으로 안아온 다발적성과 사업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경제강국 건설에 박차를 가하여 국가의 중요기술부문에서 선진국과 어깨를 겨룬다.》

어느날 이상히 놀이 내세운 200일전투목표수행을 위한 돌파구를 힘있게 열어제끼고 열의에 대항쟁광산 건설을 기세있게 밀고나간 일군들 중 한사람은 뜻밖의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다. 곧은 암반층

당일 경도업적을 빛내기 위한 투쟁에서 발휘된 혁명적인 사업기풍

주제혁명의 최후승리를 일대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명도업적을 빛내기 위한 투쟁에서 비롯된 여러가지 어려운 조건이 제기되었지만 그 지장력대일군들의 높은 의지와 파격적 투쟁을 통해 이룩된 성과는 눈부신 것이다.

그는 자기의 과학기술력만으로 전담주과수업장지체조를 조직하고 정치사업과 조건보장사업을 앞세움으로써 200여대 생산 성과를 올렸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한다. 그러하여 그는 지장력대일군들의 높은 의지와 파격적 투쟁을 통해 이룩된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용용을 받들고 자력의 힘으로 감시카메라, 액정텔레비전, 컴퓨터를 비롯한 수백점의 설비, 자재들을 해결하여 훌륭히 꾸민 일군의 개개열광과 현대적설비들을 갖춘 과학기술보급사업에도 종업원들이 그 노력을 특출히 보이며 원동력과 열의로 생산기지, 새로 꾸민 종업원식당에도 당의 명도업적을 고수하고 빛나는 사업을 생명선으로 불려일으킨 일군의 헌신의 발자취가 비껴있다.

당일 경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이기를 생명선으로 여기고 그는 남산에 총성의 자욱을 번뜩여 새겨가고 있다.

수명의 유년관철전에서 일군들의 위치는 어디인가. 대성지(도국) 국장 박영진동무의 사업기풍이 그에 대담을 준다. 빛내이려만 하더라도 지도국산하 경도업적담당들의 실력은

통이 큰 작전, 완강한 실천력

위대한 장군님의 용용과 박각전대의 과학화를 실현함에 대한 의지를 받들고 박영진동무의 방침을 받들고 박영진동무와 지도국일군들은 공상에 쓰고 무결관상공정을 새로 꾸리고 생산을 정상화하여 증대생산선정설비에 보내주어 조지내 원공정 원산속이던, 애육원을 찾은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70일전투기간에도 여섯 차례나 내외의 혁명사적교양선정설비 나서는 공정을 끌어주고 자기를 돌보고 함께 현장에서 3일밤을 꼬박 새우며 새 제품 생산을 위한 시운전도 보장한 그를 공장총원들이 때 때리지 않았다.

수명의 유년관철의 제1선,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일군들이 차지하여야 할 위치임을 박영진동무는 실천으로 보여주었다.

《완강한 실천력》

황해남도인민보안군이 지난 한해사이에 당의 명도업적담당으로서의 면모를 완전히 새롭게 갖추었다.

이곳 일군들까지도 자기들이 새운 일을 두고 믿기 어려웠던 정도로 방대한 일감을 해제면 이 능수능란의 어떻게 이룩되었는가.

지난해 5월 당의 크나큰 신임을 위하여 새로 임명되었던 황해남도인민보안군 정치부장 최철하동무의 마음은 무거웠다.

단위의 전반적면모가 당의 의도와 시대의 요구에 따르지 못하였었다.

(당의 명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사업을 생명



심장에 안고 사는 좌우명

실천적모범으로 일군들과 종업원들을 불려일으켰다. 해당 기판으로 밤이 낮도록 뛰어나고 있다. 밤을 이어 현장에서 이신 적되어 있다.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총성같이 넘겨준 변화된 가운데 1승률과 2승률도 띄웠고 그리고 청년학교를 비롯한 교양장소들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영상이전문원들이 밝고 정중하게 모셔졌다. LED주방등과 LED 조명등을 새로 설치한 결과 10%동 양광을 위대한 수령님의 대의적성이 더 밝고 정중하게 모셔졌으며 전세위원들의 거룩한 발자취가 어려웠던 800석의실과 400석의실, 열광실들이 명도업적담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며 훌륭히 개진되었다.

당장전 70일을 계기로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이 훌륭히 꾸려져 종업원들에 대한 명도업적교양의 필요를 더욱 높일수 있게 되었다.

수명의 유년관철전에서 일군들의 위치는 어디인가. 대성지(도국) 국장 박영진동무의 사업기풍이 그에 대담을 준다. 빛내이려만 하더라도 지도국산하 경도업적담당들의 실력은

완강한 실천력

위대한 장군님의 용용과 박각전대의 과학화를 실현함에 대한 의지를 받들고 박영진동무의 방침을 받들고 박영진동무와 지도국일군들은 공상에 쓰고 무결관상공정을 새로 꾸리고 생산을 정상화하여 증대생산선정설비에 보내주어 조지내 원공정 원산속이던, 애육원을 찾은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70일전투기간에도 여섯 차례나 내외의 혁명사적교양선정설비 나서는 공정을 끌어주고 자기를 돌보고 함께 현장에서 3일밤을 꼬박 새우며 새 제품 생산을 위한 시운전도 보장한 그를 공장총원들이 때 때리지 않았다.

수명의 유년관철의 제1선,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일군들이 차지하여야 할 위치임을 박영진동무는 실천으로 보여주었다.

《완강한 실천력》

황해남도인민보안군이 지난 한해사이에 당의 명도업적담당으로서의 면모를 완전히 새롭게 갖추었다.

이곳 일군들까지도 자기들이 새운 일을 두고 믿기 어려웠던 정도로 방대한 일감을 해제면 이 능수능란의 어떻게 이룩되었는가.

지난해 5월 당의 크나큰 신임을 위하여 새로 임명되었던 황해남도인민보안군 정치부장 최철하동무의 마음은 무거웠다.

단위의 전반적면모가 당의 의도와 시대의 요구에 따르지 못하였었다.

(당의 명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사업을 생명

당중앙 따라 백두의 행군길을 영원히 이어가리라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길을 개척하신 60돐을 맞아 전국청소년학생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이 진행되었다.

60년전 혁명전적지답사로장을 보전보수부터 백두산마루에까지 이어지게 잡아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답사행군대원들은 항일의 친구들을 돌아보며

주체혁명사에 빛나는 백두산철새위인들의 불멸의 혁명업적과 항일혁명선열들의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을 깊이 체득하였다. 전체 답사참가자들은 백두산일영고향집

을 방문하고 혁명의 상상 백두산에 올라 백두의 넋과 기상을 심장깊이 간직하였으며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사상과 영도를 충정로 받들어 앞날의 조선을 믿음직하게

떠고나가며 백두에서 시작된 주체혁명 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할 맹세를 다지였다. 당의 뜻을 받들어 온 나라 청소년학생들 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깃바람정신으로

뜻깊이 걸어가는 백두의 행군길은 경애하는 김정원수님께서 이끄시는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의 한길로 끝까지 이어질것이다. [조선중앙통신]



나미비아공화국 대통령특사 일행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그들은 만경대 및 집방문을 기념하며 사진을 찍었다. 특사일행은 또한 주체사상탑을 참관하였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어 자주시대 인류가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비문적 업적을 깊이 전하는 대기념비의 함성과 군상들을 돌아보았으며 함천강대에 올라 정양지의 전경을 우람하였다. 특사는 장상록에 위대한 수령의 정신이 영원히 바라며 나미비아는 언제나 조선인민의 벗으로 단결을 이룩해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이밖에 손님들은 파각기술전당과 정성유치원 등을 참관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그 어떤 궤변으로도 저지르고 있는 군사적도발의 엄중성을 가리울수 없다

【평양 8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미제의 사육필에 남조선피괴부호조력자들이 한강하구와 서해연평수역에서 벌이고 있는 군사적도발행위를 내외의 강력한 항의와 규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이에 바빠맞는 미제와 남조선피괴군부호조력자들은 저들이 벌이고있는 이 수역에서의 군사적도발행위를 정당화하고 긴장국면을 조성하고있는 책임에서 벗어 나보려고 이리저리 늘어대고있다. 피괴국당부는 저들의 무모한 군사적 도발을 폭로하는 글이 나가자 《북의 군사적도발주장은 억지》라고 꾸짖어대다 못해 나중에는 이른바 《퇴거》작전이 중국이던들의 불행이로활용을 단속하기 위해 《정전협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친 정당한 활동》이라는 말도 인피는 궤변까지 늘어놓고있다. 피괴침과 침범피의 쿠치라고 해야 적 중합당이다. 남조선피괴들이 떠벌이는 정전협정으로 말하면 이미 아무런 효력도 없는 휴지장조로 버림받은지 오래다. 미제는 지난 60여년간 조선반도에서의 군사적도발을 교조시키는것으로 정전협정의 모든 조항들을 전면파괴하였던것이다. 우리에게 대한 핵선제타격계획까지 공개해대며 각종 핵전쟁실시장비들을 조선반도에 끌어들이고 정세를 극한으로 불고가고있는 미제의 책정은 정전협정의 모든 조항에 대한 가장 잔혹하고 무지한 지한 과거, 유린행위이다. 더욱이 남조선피괴들은 정전협정체결 당시자도 아닌것만큼 그 무슨 정전협정

이라는것을 입에 올리는것자체가 남포기 부끄러운 일이다. 그런 그들다치고 거짓과 위선의 능수라고 해도 궤변을 늘어놓을 때는 초보적인 사실여부는 알아야 한다. 정전협정 《한강하구에서의 민용선박항행에 대한 규칙 및 관계사항》 7항에는 《우측한 쪽이 없는 모든 군용함선들과 군사인원 및 무기, 탄약을 실은 민용선박과 중립국선박은 모두 한강하구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명기되어있다. 군사정전위원회가 혁신의 위법행위로 조작된지 오래것은 제쳐놓고 《퇴거》의 의미를 바로 해석하야 한다. 미국정부는 피괴들을 군사적도발로 부추기기 위해 이른바 《퇴거》작전이라는 것을 우리측에 일방적으로 통보해도 우리 군대의 공식적인 승인이 있기 전에는 군함 한척, 군사인원 한명도 한강하구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있다. 도발과 대결에 계절이 불고 승리와 흥매로 굳어진 나머지 무뎠다고 생각자를 부러도 이런 사실만은 알고있어야 한다. 어떻게 하나 북남사이에서 무력충돌의 군원을 조성해보려는 악랄한 기도밑에 한강하구와 서해연평수역에서 벌이고있는 미제와 남조선피괴들의 군사적도발행동은 교외적인 적대행위로 정대로 용납될수 없다. 미제와 남조선피괴들은 한강하구와 서해연평수역에서 벌이고있는 무모한 군사적도발행동이 제2의 연평도포격전과 같은 만리할수 없는 보복대응을 초래해 한다는것을 꼭바로 알고 당사 증거하여야 할것이다.

영예군인의 친딸이 되어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을 내세워주고 그들의 생활을 잘 돌보아야 할이다.》 오늘 우리 사회에는 당에서 그처럼 아끼고 내세워주는 영예군인들을 중심으로 돌봐주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속에는 구성시 성안동 40인민반에서 사는 특유영예군인 문은국동무를 친딸이 된 성인으로 도와주고있는 구성시 1인민반원 내과의사 박경아동무도 있다. 지난해 9월 어느날이던데, 박경아동무는 병원에 새로 입직 한 간호원들속에서 낯익은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름이 문단심, 아버지는 특유영예군인, 그럼 혹시 이 동무가?) 박경아동무는 문단심동무에게 물었다. 《저, 그전에 상식동에서 살았지?》

《예, 그런데 어떻게...》 그제서야 박경아동무는 문단심동무가 문은국영예군인의 딸이 돌림없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문단심동무도 아버지가 늘 외우던 어린 그 고마운 사람들이 다름아닌 박경아동무와 그의 부모라는것을 알고는 반가와 어쩔줄을 몰라하였다. 10여년전 상식동 이웃에 살면서 친혈육처럼 지내던 때가 생각나는 모양이었다. 서로 이사를 가다나니 헤어져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아는다는것이였다. 그 소식을 듣고 다음날 박경아동무는 병원에 새로 입직 한 간호원들의 딸 문단심동무를 만난 그의 부모는 아버지의 안부를 물으며 그동안 자부 찾아가지 못해 미안하다고 하였다. 그 모습을 본 박경아동무는 부모의 뒤를 이어 문은국영예군인을 잘 돌보아주라 결심하였다. 이렇지 않게 부모의 손목을 잡

온 나라에 울려 퍼지는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보전제도의 혜택아래 두번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꾸밈없는 고마움의 마음을 담아 한자한자 쓴 편지들을 본사편지국으로 계속 보내오고있다. 편지의 구절구절은 그대로 온 나라에 울려 퍼지는 사회주의만세소리, 로동당만세소리이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보건부문 일꾼들속에서 사담의 실금을 실러는 아홉 다은 소행과 감동적인 사실이 많이 나오고있는것은 우리 인민의 자랑입니다.》 평양시 평천구역 해운2동에서 살고있는 리춘희녀성은 지난 3월 김일성종합대학 정양의학대학병원의 의료일꾼들의 지극한 정성에 의하여 두달전에 상신했던 자기의 기억을 되찾았다. 처음 병원에 실러올 때 그는 말도 제대로 편지지 못했고 기억력을 상실하여 자기의 담당의사도 가려보지 못했다. 경화강 길에서, 파강 전소치동 병원의 의료일꾼들은 수십차례 번번히의 의뢰를 들으며 여러 명의 협회와 여의치며의 여러 수 수술을 진행하며 환자의 병

각지 독자들이 보내온 편지들에서

다보며 그의 인내가 눈물만 흘리고있을 때 뜻밖에 병원조금방 일꾼이 찾아와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보전제도가 있고 우리 당이 있는데 무슨 걱정인가 하고 힘을 주는것이였다. 제영철동무는 그의 밝은 미소속에서 어머니당의 사랑을 깨우쳐 느꼈다. 병원조금방위원회의 남다른 관심속에 그는 활기와 정력에 넘친 새 생활을 시작할수 있었고 100여일간의 입원생활과정에 병을 털고 일어났수 있었다. 이뿐이 아니다. 연산군에서 살고있는 리명실녀성은 군사임무수행중 뜻하지 않게 두눈을 잃은 아들을 위해 정성을 바친 고마운 사람들을 잊을수 없다고 하면서 편지를 이렇게 썼다. 《조선적십자총합병원 안과전문의병과장 리정명, 의사 한익현선생님을 비롯한 이곳 의료일꾼들은 저의 아들이 조국을 위해 귀중한 정신을 바친 영예군인이 되고 각별한 관심을 돌리면서 집중치료전투를 벌여주었습니다. 치료도중 위급한 정황이 조성되었을 때에는 순간도 아들의

결을 떠나지 않고 긴급대책을 세우면서 밤을 꼬박 지새우기도 하였습시다.》 계속하여 그는 여러 계기 때마다 집에서 생의와 마린한 음식들을 가지고 찾아와 고쳐주던 그들의 모습을 보며 훌륭한 보전일꾼들을 키워낸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고마움으로 눈물을 흘리곤 하였다고도 하였다. 몇년세월을 벌의병 방법을 제정하는 창립 의료일꾼으로서 키워내세워준 위대한 조선로동당이 라는 성스러운 부름이 더욱더 소중히 간직되게 되었다. 그들의 편지에서 울리는 찬사의 목소리는 그대로 위대한 어머니당이 드리는 감사의 인사이며 인민의 심장속에 간직된 사회주의의 모습, 어머니당의 정진한 모습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민의 진심으로 떠치는 사회주의만세소리, 로동당만세소리이며 그들의 심장속에서 우리나오는 위대한 당에 대한 다함없는 찬가가 아니겠는가. 감 효 심

총정의 200일전투에서 발휘되는 우리 인민의 고상한 사상정신적품모

끊임없는 기적창조로 높뛰는 심장의 박동소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부름이려면 한마음 한뜻으로 댈쳐입어나 산도 돌고 바다도 뚫우는 기적을 끊임없이 창조해 나가는것은 우리 인민의 투쟁전선이며 기쁨입니다.》
 200일전투가 시작되자 대대리광산은 활도시나바라 달아 올랐다.
 힘차게 돌아가는 마광기와 부선기들, 뚝뚝이 울음을 흘리는 펌프들과 저방사에 두드기 쌓이는 광석들...
 당이 제시한 민정광업목표 30일전투를 위해 힘찬 전진군을 다그치는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발구름을 소리내어 달리는 광산정신들의 등등이 거세차게 울었다. 그들은 어느날 마광기의 거세인 용음이 뚝뚝 고장이었다. 속속은 마광기를 바라보는 운전자들과 선장직장장은 물론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가슴은 아는것만 같았다.
 초급당원전투와 함께 달려온 즉시 마광기장비 정비의 필요는 지대한 최상지도체의 심장 그들과 더불어 울었다.
 현장자동화회의에서 열린 지대인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단호하고 강력했다.
 《마광기장비를 잠시도 멈출

수 없습시다. 70일전투때처럼 말입니다!》
 지대인의 맑은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심장을 울렸다.
 70일전투, 생각만 해도 가슴이 터지는 잊지 못할 날이었었다. 이것은 전력사상도 긴장하고 자제보장도 좋지 않았던 때였다.
 하지만 지대인 최상지, 초급당원전투를 지휘하는 장수, 최첨단 장비들은 조건을 갖치지 않았다.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광무로위원회와 당중앙위원회 편지를 높이 받들고 일군들은 전기기를 작게 쓰는 야외부선장을 보수 정비하여 70일전투목표를 임명된 대담한 목표를 내세웠다. 그들은 뛰어난 선장직장장정장, 기술자, 운전공부들을 비롯하여 함께 용접불꽃을 날리며 마광기를 보수정비하고 부선기들을 새로 짓기위해 수리정비해놓았다.
 설방직장과 운광직장, 건설준비대를 비롯한 광산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용수보장을 위한 펌프기구수정보수를 같이 번복 내제했다. 광무로위원회 운광직장의 기술자, 운전공부들은 지대의 힘과 기술로 맞이했던 불도철과 선반기들을 모두 되살렸다.
 혁신적정적들이 련이어 창조

되던 그 날 아름다운 소백들도 수없이 발휘되었다.
 총정의 70일전투가 시작되자 가정에서 성의껏 마련한 지원물자들을 안고 자제편파로 달려간 지대인, 전투원들의 열광적인 성파를 이루었다. ...
 정신력을 최대한 분출시켜 사상정신적공모와 투쟁기풍에서 일대 비약을 이룩하던 나날을 돌이켜보는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가슴은 마냥 달아올랐다.
 총정의 70일전투의 나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뜻을 뼈에 새기고 지역지대에 대한 애정, 대의심을 창조할 수 있었다는 절미로 심정에서도 체득한 70일전투정신자들이 우리가 순간이나마 주저할수 없었었다.
 잊지 못할 70일전투의 그때처럼 광산일군들과 종업원들은 한에서도 지원물자들을 성의껏 마광기를 되살렸다. 마광기는 또 다시 거세한 용음을 울어 올랐다.
 기운차게 돌아가는 마광기의 용음, 그것은 오늘 200일전투에서 자랑거리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열광적인 용음을 울어 올렸다.
 그 모든 후터를 정장은 말없이

스스로 만짐을 지고

평양자동 화기구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드높이 날아날라 다 기적과 혁신을 일으키며 질풍같이 내달리는 시대의 선구자적공모는 평양자동화기구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로서는 무엇보다도 자랑스러운 일이다. ...
 《오늘 우리 시대의 참된 애국자는 내나라, 내 조국을 더없이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사회주의 우리 조국을 강성대국으로 일떠세우는 애국의 한마음을 안고 공민적의무를 다하는 사람입니다.》
 얼마전 평양자동화기구공장 정거기적장에서 열린 회의에서 우리식의 고상한 선구자적정신공공성이 확립되어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었다.
 여기에는 자강적에 일군의 가치를 높이고 조국건설을 위한 절에 위훈의 자국을 뚜렷이 새겨주고 있는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불같은 창조정신이 깃들었다.

인민의 마음속에 간직된 모습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첫자리에서 놓고 인민을 위하여 법사복무하며 인민을 믿고 인민에게 의거하며 모든 문제들 물어 나가는 원칙을 견지하여야 합니다.》
 대성구역 북쪽동 30일전투에 사는 박해숙동무가 의식을 바친 것은 3시간만이였다. 한 위생복귀의 사람들이 그를 바라다보며 웃음짓고있었다.
 그는 나직이 물었다.
 《여기가 어딘디야?》
 《속천군 성남리전투소입니다.》
 광속에서처럼 들려오는 목소리였다.
 박해숙동무는 기억을 더듬었다.
 그세상에 달리는 배스,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며 눈앞이 흐릿해져서, 격정스레 자기를 바라보던 손들...
 그이상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다. 머리맡에 앉아있던 간호원이 그사이 있었던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였다.
 박해숙동무가 급병으로 속천군 성남리전투소로 들어온것은 그가 만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지난 5월 14일 점심때이었다. 신선상태인 그를 영접한 사

속천군인민보안원 인민보안원 문상길동무
 밝은 인민보안원이였다. 즉시 치료조치가 벌어졌다. 얼마후 위급한 기보는 넘겼다. 인민보안원의 말을 듣고서야 인민보안원은 총총히 진료소를 나섰다. ...
 《인민보안원이 누구냐?》
 한자의 뜻밖의 물음에 의도된 눈이 휘둥그레졌다. 온몸이 떨구머니가 진해 부락한다는 말을 곁편인 인민보안원의 그 인상을 마주히 눈앞에서 머릿속을 흔들었다.
 하지만 그들은 한자의 의식을 회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한시바히 집으로 보내보려다 인민보안원이 또 어떤 전정을 바쳐가고있는지는 알수 없었다. ...
 인민보안원이 타고온 승용차가 전포소앞마당에 대고있었다. 문밖을 나서신 박해숙동무는 교묘한 인민보안원과 의로 일군들이 띠었다.
 그대의 심정에 대해 그는 후한 속천군인민보안원 정치일군으로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다.
 《그들은 나와 혈육도, 아는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나를 위해 전정을 바치고 정신을 기울였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리워 절음을 울컥 그나 없었습니다. ...》
 수간 박해숙동무에게 그 뜻을 수 없는 인민보안원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가족들이 걱정할가봐 뜻밖의 일로 좀 지체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피나면 우선 전화부리 하십시오.》
 박해숙동무는 자기를 바치우는 그야은 사람들의 형태 교를 깊이 속사되었다. 그는 사선

혈육의 정 넘치는 마을
 문경대구역 당상2동 96인민반에서
 들이 오가는데 보게 되었다. (무슨 일인가?)
 그날 광동구의 외삼촌으로부터 그들이 인차 한날한시에 결혼식을 한다것을 알게 된 종질순동무는 생각이 깊어졌다. 어머니는 7년전에 못헤지 않았는데 그들이 들어와 결혼식에 정양화발전연합기업소에서 로동자로 일하던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 광동구는 부모없이 살았었다. 그러면서도 마을로 귀를 비롯한 인민반사에서도 모범적으로 참가하였. 이웃들에게 웃음만을 지어보인 웃음은 쌍둥이 아버지였다.
 (부모들이 살아있었으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문경실동무는 부모를 대신하여 결혼식을 남부리지 않게 해주리라 결심하였다. 남편도 제국 지지해주었다.
 《그대서 인민반장이 아니겠소, 우리가 친부모의 심정으로 살 차례주요.》
 이런 일은 비단 인민반장의 집에서만 있었것이 아니었다. 안록단인의 가정에서도, 양육공부부와 김영숙동무의 가정을 비롯한 인민반의 많은 집에서도 쌍둥이의 결혼식을 위해 각별한 정을 기울였다.
 인민반원들의 관심속에 색감과 모양이 고은 두툼한 이불이 담요, 부엌세간들과 결혼상에 놓일 것까지 과일과 담파류 등이 마련되어가던 어느날이었다. 인민반장의 집으로 김재순로 인이 찾아왔다.
 《반장, 인민반의 쌍둥이가 결혼식을 한다것을 며칠전에 아알았. 이걸로 결혼상의 배경을 하던 어땠었다.》
 그러어 할머니는 풍직한 그림을 펼쳐놓았다. 반수대장장사네 다니는 딸이 딸을 새워키며 그런 그림이라는것이였다. 그림은 칙 모배에도 지성이 깃들어있음을 알수 있었다.
 이렇게 온 인민반의 혈육의 정속에 마련된 결혼식이였다. 쌍둥이처럼은 온밤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결혼식날 친부모, 친혈육이 피

주라격전방을 함께 지켜선 심정으로 해주시의 공로자 강연 강사들
 해주시의 공로자 강연 강사들
 단호하고 강연선전의 내용과 형식, 강사들의 화술에 이르러까지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있다.
 해주시의 공로자 강연 강사들
 단호하고 강연선전의 내용과 형식, 강사들의 화술에 이르러까지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있다.
 해주시의 공로자 강연 강사들
 단호하고 강연선전의 내용과 형식, 강사들의 화술에 이르러까지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있다.



일편단심

대 이젠 우리가 기관사의 주인이 되고 나라의 주인이 되겠다. 김승훈동무는 자기의 희망을 이야기하고 꿈꿔주시는 교묘한 조공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칠 결심을 하고 운행길을 즐기게 되었다. 당시 기관사들속에서는 《얼마나 더 팔았소?》, 《얼마나 더 달렸소?》 라는 물음이 인사를치며 되여왔다. 기관사란한은 겉치 않았지만 김승훈동무는 그 물음을 늘 웃으며 대답하던 하였다.
 김승훈동무가 식한을 수송할 때였다. 한 탄광에 갔을 때였다. 지대장관들이 산처럼 쌓여있는 식탄더미들을 바라보는 그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날 김승훈동무는 한번에 전 일정량보다 수백의 짐을 더 달고 탄광 결산을 책임기관사였어 버는 일이었다. 전일정량보다 화차를 1량, 2량씩 더 달고있던 나날에 배병이 커진 것이다.
 《목표를 높이 세우는데도 좋지, 하지만 무리한 전일정량은 절대금지.》
 그러면서 책임기관사는 기관사들에게 철길상태를 잘 파악하고 운행구간에 정통한 기초우에서 전일정량과 하여야 할운을 성실적으로 보장할수 있다는데 대하여 자강군단 내려주었다.
 김승훈동무는 각종 예비부속품을 정비하여 미연체하고 기관사의 성능을 부단히 높여왔었다. 철길상태와 운행구간들을 손끝부터 파악하기 위해 먼길도 마

총정의 궤도를 따라

지도기관사로 력영웅 김승훈동무에 대한 이야기
 실이나라면서 무사고주행을 보았어 위대한 수평밀기 기공을 도록 사귀지 않았다. (무사고주행을 위하여 나는 과연 할일을 다하고있나?) 김승훈동무는 철길상태와 운행구간을 파악하는것으로 무사고운행을 위해 학비로 된다고 생각했던 자신은 호기초 집적하였다. 이불분부러 그는 은행구간에 있는 수급개의 학교를 배정없이 정사기 시작하였다. 그리고는 점심마다 대 학교 교도원들이 철길상태를 지켜야 할 규정과 그것을 지키는것이 가장 중요한 공적은 편지들을 한자한자 풀었다. 그들이 고집이 아니었다. 전제 인민이 철도를 예호하며 직구 지원한데 대한 위대한 수평밀기의 가르침을 해설하여 관공적으로 철도를 지체하여 기관차들이 무사고정상으로 달리고 싶다고 하였다. 자기들만이 아니라 사회주의건설을 힘차게 다그쳐나갈수 있다고 열망한 기관차들이었다. 다른 기관차들과 공장, 기업소들, 가두인민반들과 연락 받았다.
 위대한 수평밀기의 뜻을 받들어 철도를 힘껏 달았다. 결미를 받은 회담자들은 밤을 새고 기공이 얼마나 되었나.
 김승훈동무는 이어 기관차에서 모든 기관사들의 무사고정신운전을 위하여 철길도표와 철길상태도, 그에 따르는 표준운전조작법을 만들기로 결심하였다. 그러자면 철길구간을 정복

은 50여년의 하루하루, 그가 달려온 135km의 한구간을 수간이 이런 열렬한 그들과 똑같은 총정으로 이어져왔다. * * * 우리가 김승훈동무를 만났을 때 그는 당 제7차대회 결정판별 그드바른 시간을 보내고있었다. 그가 속한 대대의 총정의 70일전투기공에서는 이렇게 뛰어왔다. 《지도기관사 력영웅 김승훈동무는 70일전투를 맞으며 135km를 무사고로 주행하는 위훈을 떨치게 된다는 김승훈동무의 노력이 뜨겁게 솟아 있었다. 김승훈동무는 40여년을 당 세로위원장으로 사임하고있었다. 그날 그는 수급개의 입장을 보증하였으며 그것이 오늘 철도 운수부문의 일군으로, 기관사, 책임기관사로 지나온 우리들의 한해한 구상을 받들어 두들기며 김승훈동무가 총정의 기적소비를 높이 올려가고있다. 《김승훈동무의 머리에 두 현시기가 내려졌다. 그러나 일관단심 담을 따라 한길은 가서는 총정은 후한의 그 시절에 나 오늘에 변함이 없다. 몇몇년 김승훈동무가 한 기관사와 함께 승무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였다. 나이도 많았는데 김승훈동무가 김승훈동무를 라기 할때는 김승훈동무는 생각깊은 어조로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승무를 마치고 돌아올 때마다 늘 어떤 생각을 하고 한. 한편의 승무도 함께 부내내야 야원철자를 타시고 초장초장경관 길을 이어가시는 우리 장관님의 로고는 얼마나 크실까?》 김승훈동무가 기관사로 일

고원전기기관차대 지도기관사
 고원전기기관차대 지도기관사
 고원전기기관차대 지도기관사
 고원전기기관차대 지도기관사

《대북압박외교》는 파산을 면할수 없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어리석은 망상에 사로잡혀 외세의 반공화국압박공조에 계속 필요하게 대방하고있다.

며칠전 피뢰외교구 장관 은병체는 저들이 외세를 상대로 벌리고있는 반공화국압박공조결핵을 대해 광고하면서 그 무슨 《호랑이굴외교》나 뉘나 하고 떠돌이했다. 그야말로 소가 온타가 꾸레미러집노릇이 아닐수 없다. 은병체는 미련한 처사는 민사참의 조소만을 지아 뉘논이다.

이제는 이미 호랑이굴과 다 친해졌다. 《호랑이굴외교》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피뢰를 동조했다. 그야말로 소가 온타가 꾸레미러집노릇이 아닐수 없다. 은병체는 미련한 처사는 민사참의 조소만을 지아 뉘논이다.

피뢰제당의 망들은 안락으로 구판 배정하고있는 《대북압박외교》내용을 미끼하며 그것을 어떻게 하나 지평해 보려는 가소로운 추태이다.

외세의 공조하여 동족을 해치는것은 남조선피뢰들의 변협없는 홍심이다. 남조선당국자들의 《대북압박외교》내용이 저급침략 정세에 탈환적은 일러져 없었다.

이것이 력역적력을 증추로 하는 우리 북조선의 권력강화외교 《대북압박외교》 《위협외교》 견고하며 외세를 상대로 벌리고있는 《대북압박외교》내용은 집권자는 물론 피뢰당국자들이 흥흥연고있었다. 어제는 중동, 오늘은 유럽, 내일은 아메리카 하는 식으로 여기저기를 분주스럽게 찾아다니는 피뢰들의 공중에서 비바소라 날 정국이다.

피뢰제당은 미국을 비롯한 기존의 《동맹》사들과의 반공화국《제제》안으로는 저들의 범피적목적을 실현할수 없게 되자 비발해외교 《북의 우방국 및 동조국을 집중공격하는 압박외교》에 본격적으로 나서고있다. 최근 남조선집권자와 은병체역도가 벌려놓은 해외행각의 대상으로 바로 그 나라들이다. 피뢰제당은 저들이 《북의 우방국 및 동조국》으로 규정된 나라들을 구차스럽게 찾아다니며 《제제와 압박을 통한 북핵포기를 지지》해달라느니, 《북파의 협력관계를 중단》해달라느니 하고 너털하게 밀붙는가 하면 그것이 통하지 않자 피뢰가 없는 본래역사까지 포기하고있다.

결국 《호랑이굴외교》라는것은 외세의 아합하여 우리에게 대한 정치군사적압박과 경제적《제제》를 더한층 강화하고 반공화국압박외교를 한사코 실현하려는 피뢰제당의 반민적적인 《대북압박외교》가 배설한 더러운 제꺼기에 지나지 않는다.

북조선 피뢰들의 《호랑이굴외교》라는 것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분별없이 떠돌이하는 저능아들의 황태 같은 망상이라는 사실이다. 피뢰당국자들은 지금 《제제》효과가 차츰 나타나고있느니 뉘나 하고 제나라대로 수작질하고있다. 며칠전 은병체역도는 한 아프리카나라의 《외교장면》이 어찌되지커니 하며 마치도 저들의 《호랑이굴외교》가 성과를 내고있는듯이 허세를 부렸다. 그야말로 현실감각과 판단력 없는 자들의 어전인수작의 망들이 라고 해야 할것이다.

역사와 현실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그 어떤 《제제》도 선군의 거지, 자장 력적세력들의 기지를 높여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에게서는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 남조선 피뢰들의 《대북압박외교》가 실로성

이 없다는 견해를 표시하고있다. 유엔의 《제제》가 강화되고있지만 《북을 핵무기를 소탕화하고 대북간담도미싸일 능력을 향상시키었으며 첨단기술을 요구하는 무장장비들을 독자적으로 개발한 성》하고있다는것이다.

일마진 남조선의 전 통일부 장관들은 반공화국《제제》효과에 대해 의문을 표시 하면서 오�히려 현실 북남대결상황의 해소를 주장하고있다.

남집이가 제값이라고 남조선당국자들이 벌려놓고있는 《대북압박외교》는 그들 자신을 막다른 곤경과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 피뢰들은 가는 곳마다에서 수지와 맹태를 받고 개교맹신을 당하고있다. 피뢰들이 그 무슨 《전략적동반자》, 《국제공조》나 하며 역전적 놀아내고있지만 그 누구도 역적부러울 《외교적력력》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있으며 미국의 식민지주, 반핵을 나눈 동족을 끌어들이기 위해 정신없이 날뛰는 미친개투라고 흔히들 부른다. 민족적자존심이라고 하는 표골만큼도 없는 사대배적자적인 피뢰제당이 부끄러운중도 모르고 동족을 해치기 위해 여기저기를 주된 개척처를 찾으다가 수지와 목욕을 당하고있는 너무나도 음담진이다.

지금 조선반도주변나라들이 특출한 모인도 없이 황태없이 북을 자극하여 정세한 긴장시키고도 눈을 흘기는 비뚤한 남조선당국자들은 전범만 흘리고있다. 그 말이 오죽 보기 흉했으면 남조선의 언론계와 전문가들이 당국이 《대북압박외교》에 총력을 다해왔지만 《북적공세》는 위기에 몰리고 남조선은 대북들의 함에 끼여 망국의 초췌한 《동대북신세》가 되었다고 조소하고있었다. 피뢰집권세력의 조국사회의 여론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제제》가 실로성

어떤 원칙이나 일관성도 찾을수 없다는것이 남조선 각계의 주장이다. 피뢰들은 이렇게 그 누구의 《의지를 휘어놓겠다.》고 큰소리를 치며 벌려놓은 《대북압박외교》내용이 안락으로 규정한 반공화국《제제》기운에 바람을 불어넣기 위해 《호랑이굴외교》라는것을 적극 활용하고있다. 우리의 자치적인 핵역력강화조치에 화물력 놀라 외세의 사하구니에 막대 때달피며 도와달라고 미구 허풍대는 피뢰당국자들의 추태는 그야말로 외세의존과 동족해탈로 리성을 완전히 잃은 미치광이들의 단발마작발악이다.

남조선피뢰들이 외세를 통해 먹고 우리에 대한 《제제》의 도산을 노리고있고 그 무엇이든 일으켜 날뛰는 남조선당국자들이다. 피뢰당국자들이 아 무런 《호랑이굴외교》나 뉘나 하면 《대북압박외교》가 기세를 부리며 더욱더 격어올라가는 위험도 없다. 있다면 그것은 총독의 북남관계개선정책에 도전하며 외세와 함께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핵전망위험을 고조시켰다는 비난과 구판문제, 피뢰들은 스스로 자기들의 손발을 얽어매고있다.

피뢰제당은 세 주제도 모르고 동족해탈에 한정이 되어 외세의 호차화에 계속 메달리다가는 더 큰 망신과 대외격침, 파멸을 면치 못하게 될것이라는것을 명심해야 한다. 심철영

남조선당국자들이 어리석은 망상에 사로잡혀 외세의 반공화국압박공조에 계속 필요하게 대방하고있다. 며칠전 피뢰외교구 장관 은병체는 저들이 외세를 상대로 벌리고있는 반공화국압박공조결핵을 대해 광고하면서 그 무슨 《호랑이굴외교》나 뉘나 하고 떠돌이했다. 그야말로 소가 온타가 꾸레미러집노릇이 아닐수 없다. 은병체는 미련한 처사는 민사참의 조소만을 지아 뉘논이다. 이젠 이미 호랑이굴과 다 친해졌다. 《호랑이굴외교》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피뢰를 동조했다. 그야말로 소가 온타가 꾸레미러집노릇이 아닐수 없다. 은병체는 미련한 처사는 민사참의 조소만을 지아 뉘논이다. 피뢰제당은 미국을 비롯한 기존의 《동맹》사들과의 반공화국《제제》안으로는 저들의 범피적목적

를 실현할수 없게 되자 비발해외교 《북의 우방국 및 동조국을 집중공격하는 압박외교》에 본격적으로 나서고있다. 최근 남조선집권자와 은병체역도

가 벌려놓은 해외행각의 대상으로 바로 그 나라들이다. 피뢰제당은 저들이 《북의 우방국 및 동조국》으로 규정된 나라들을 구차스럽게 찾아다니며 《제제와 압박을 통한 북핵포기를 지지》해달라느니, 《북파의 협력관계를 중단》해달라느니 하고 너털하게 밀붙는가 하면 그것이 통하지 않자 피뢰가 없는 본래역사까지 포기하고있다.

결국 《호랑이굴외교》라는것은 외세의 아합하여 우리에게 대한 정치군사적압박과 경제적《제제》를 더한층 강화하고 반공화국압박외교를 한사코 실현하려는 피뢰제당의 반민적적인 《대북압박외교》가 배설한 더러운 제꺼기에 지나지 않는다.

북조선 피뢰들의 《호랑이굴외교》라는 것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분별없이 떠돌이하는 저능아들의 황태 같은 망상이라는 사실이다. 피뢰당국자들은 지금 《제제》효과가 차츰 나타나고있느니 뉘나 하고 제나라대로 수작질하고있다. 며칠전 은병체역도는 한 아프리카나라의 《외교장면》이 어찌되지커니 하며 마치도 저들의 《호랑이굴외교》가 성과를 내고있는듯이 허세를 부렸다. 그야말로 현실감각과 판단력 없는 자들의 어전인수작의 망들이 라고 해야 할것이다.

역사와 현실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그 어떤 《제제》도 선군의 거지, 자장 력적세력들의 기지를 높여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에게서는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 남조선 피뢰들의 《대북압박외교》가 실로성

어떤 원칙이나 일관성도 찾을수 없다는것이 남조선 각계의 주장이다. 피뢰들은 이렇게 그 누구의 《의지를 휘어놓겠다.》고 큰소리를 치며 벌려놓은 《대북압박외교》내용이 안락으로 규정한 반공화국《제제》기운에 바람을 불어넣기 위해 《호랑이굴외교》라는것을 적극 활용하고있다. 우리의 자치적인 핵역력강화조치에 화물력 놀라 외세의 사하구니에 막대 때달피며 도와달라고 미구 허풍대는 피뢰당국자들의 추태는 그야말로 외세의존과 동족해탈로 리성을 완전히 잃은 미치광이들의 단발마작발악이다.

남조선피뢰들이 외세를 통해 먹고 우리에 대한 《제제》의 도산을 노리고있고 그 무엇이든 일으켜 날뛰는 남조선당국자들이다. 피뢰당국자들이 아 무런 《호랑이굴외교》나 뉘나 하면 《대북압박외교》가 기세를 부리며 더욱더 격어올라가는 위험도 없다. 있다면 그것은 총독의 북남관계개선정책에 도전하며 외세와 함께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핵전망위험을 고조시켰다는 비난과 구판문제, 피뢰들은 스스로 자기들의 손발을 얽어매고있다.

피뢰제당은 세 주제도 모르고 동족해탈에 한정이 되어 외세의 호차화에 계속 메달리다가는 더 큰 망신과 대외격침, 파멸을 면치 못하게 될것이라는것을 명심해야 한다. 심철영

무장충돌을 노린 고이적인 도발망동

최근 피뢰제당이 3국어선들의 불법어로활동 《단속》한다는 구실밑에 한강하구에서 위협한 군사적도발에 대방하고있다. 호전광들이 벌려놓은 《3국어선퇴거》를 위한 《한강직전》에는 중무장한 전투함선들과 직공기술원까지 투입되었다.

남조선에서 전투함선들이 서해연접수역을 벗어나 한강하구까지 대방적으로 밀려드는데는 그 전제가 없는 매우 엄청난 사태이다. 한강하구는 그야말로 서로가 없어지면 코담을 곳이다. 이곳에서는 육안으로도 쌍방의 움직임을 정확히 감시, 확정할수 있다. 이런것으로 하여 정전이후 지금까지 북파 남의 무력은 한강하구에 한번도 출입하지 않았다. 어느 일방의 우방적인 사소한 움직임을 예측할수 없는 사태로 이어질수 있기때문이다.

바로 이런 예민한 수역에 피뢰들은 《3국어선단속》의 간판을 내걸고 술한 무력을 투입하며 국도의 긴장을 조성하고있다. 이것은 력대 그 어느 피뢰당국도 엄두를 내지 못한 실로 무분별한 군사적도발로서 전쟁의 불씨가 끓였음이 틀림없는 서해연접수역도 북쪽으로 한강하구까지 복침전쟁도발의 행한한 수역으로 만들려는 계획적인 책동이다.

실제로 지금 피뢰외교장면은 《한강직전》이라는것을 우리의 군사적충돌을 목적으로 하여 강행하고있다. 피뢰군부는 《한강직전》의 준비단계에서부터 《남북간 충돌가능성》이 뉘나 하면서 《어선단속》보다는 우리의 군사적충돌을 더 속각을 곤두세웠다. 호전광들은 한강하구는 설정된 군사관계도 없고 선방사이의 통신도 매우 제한되어 있는것임에도 시제 5개 설립데보다 《무력충돌가능성》이 더 높다. 고대하면서 작전개시전에 《대북정보감시시대》인 《위시시》를 끌어올리고 로병부대들을 전투태세에 진입시켰었다. 3국어선들의 불법어로활동 《제제》시작한다는 피뢰들의 《한강직전》은 바로 이런 살벌한 전쟁행위의 분위기속에 있어 감행되고있다. 이것을 과연 스쳐지나갈것인가.

무장이라는 어선들을 대상으로 요만한 군사적충돌을 벌리는것자체가 비정상인데다가 쌍방이 리효진

최근 피뢰제당이 3국어선들의 불법어로활동 《단속》한다는 구실밑에 한강하구에서 위협한 군사적도발에 대방하고있다. 호전광들이 벌려놓은 《3국어선퇴거》를 위한 《한강직전》에는 중무장한 전투함선들과 직공기술원까지 투입되었다. 남조선에서 전투함선들이 서해연접수역을 벗어나 한강하구까지 대방적으로 밀려드는데는 그 전제가 없는 매우 엄청난 사태이다. 한강하구는 그야말로 서로가 없어지면 코담을 곳이다. 이곳에서는 육안으로도 쌍방의 움직임을 정확히 감시, 확정할수 있다. 이런것으로 하여 정전이후 지금까지 북파 남의 무력은 한강하구에 한번도 출입하지 않았다. 어느 일방의 우방적인 사소한 움직임을 예측할수 없는 사태로 이어질수 있기때문이다. 바로 이런 예민한 수역에 피뢰들은 《3국어선단속》의 간판을 내걸고 술한 무력을 투입하며 국도의 긴장을 조성하고있다. 이것은 력대 그 어느 피뢰당국도 엄두를 내지 못한 실로 무분별한 군사적도발로서 전쟁의 불씨가 끓였음이 틀림없는 서해연접수역도 북쪽으로 한강하구까지 복침전쟁도발의 행한한 수역으로 만들려는 계획적인 책동이다. 실제로 지금 피뢰외교장면은 《한강직전》이라는것을 우리의 군사적충돌을 목적으로 하여 강행하고있다. 피뢰군부는 《한강직전》의 준비단계에서부터 《남북간 충돌가능성》이 뉘나 하면서 《어선단속》보다는 우리의 군사적충돌을 더 속각을 곤두세웠다. 호전광들은 한강하구는 설정된 군사관계도 없고 선방사이의 통신도 매우 제한되어 있는것임에도 시제 5개 설립데보다 《무력충돌가능성》이 더 높다. 고대하면서 작전개시전에 《대북정보감시시대》인 《위시시》를 끌어올리고 로병부대들을 전투태세에 진입시켰었다. 3국어선들의 불법어로활동 《제제》시작한다는 피뢰들의 《한강직전》은 바로 이런 살벌한 전쟁행위의 분위기속에 있어 감행되고있다. 이것을 과연 스쳐지나갈것인가. 무장이라는 어선들을 대상으로 요만한 군사적충돌을 벌리는것자체가 비정상인데다가 쌍방이 리효진

최근 피뢰제당이 3국어선들의 불법어로활동 《단속》한다는 구실밑에 한강하구에서 위협한 군사적도발에 대방하고있다. 호전광들이 벌려놓은 《3국어선퇴거》를 위한 《한강직전》에는 중무장한 전투함선들과 직공기술원까지 투입되었다. 남조선에서 전투함선들이 서해연접수역을 벗어나 한강하구까지 대방적으로 밀려드는데는 그 전제가 없는 매우 엄청난 사태이다. 한강하구는 그야말로 서로가 없어지면 코담을 곳이다. 이곳에서는 육안으로도 쌍방의 움직임을 정확히 감시, 확정할수 있다. 이런것으로 하여 정전이후 지금까지 북파 남의 무력은 한강하구에 한번도 출입하지 않았다. 어느 일방의 우방적인 사소한 움직임을 예측할수 없는 사태로 이어질수 있기때문이다. 바로 이런 예민한 수역에 피뢰들은 《3국어선단속》의 간판을 내걸고 술한 무력을 투입하며 국도의 긴장을 조성하고있다. 이것은 력대 그 어느 피뢰당국도 엄두를 내지 못한 실로 무분별한 군사적도발로서 전쟁의 불씨가 끓였음이 틀림없는 서해연접수역도 북쪽으로 한강하구까지 복침전쟁도발의 행한한 수역으로 만들려는 계획적인 책동이다. 실제로 지금 피뢰외교장면은 《한강직전》이라는것을 우리의 군사적충돌을 목적으로 하여 강행하고있다. 피뢰군부는 《한강직전》의 준비단계에서부터 《남북간 충돌가능성》이 뉘나 하면서 《어선단속》보다는 우리의 군사적충돌을 더 속각을 곤두세웠다. 호전광들은 한강하구는 설정된 군사관계도 없고 선방사이의 통신도 매우 제한되어 있는것임에도 시제 5개 설립데보다 《무력충돌가능성》이 더 높다. 고대하면서 작전개시전에 《대북정보감시시대》인 《위시시》를 끌어올리고 로병부대들을 전투태세에 진입시켰었다. 3국어선들의 불법어로활동 《제제》시작한다는 피뢰들의 《한강직전》은 바로 이런 살벌한 전쟁행위의 분위기속에 있어 감행되고있다. 이것을 과연 스쳐지나갈것인가. 무장이라는 어선들을 대상으로 요만한 군사적충돌을 벌리는것자체가 비정상인데다가 쌍방이 리효진

재벌과 《정권》의 리익을 위해 노동자가 희생되는 현실을 용납할수 없다

남조선 민주로총령로조원 1만여명 서울에서 반《정부》투쟁

《창당 8월 20일발 조선중앙통신》 남조선민주로총령로조원 1만여명 19일 서울에서 반《정부》투쟁을 전개하였다.

서울광장에서 진행된 전국로동자집회에서 민주로총령로조원 1만여명 19일 서울에서 반《정부》투쟁을 전개하였다. 투쟁에서 민주로총령로조원 1만여명 19일 서울에서 반《정부》투쟁을 전개하였다. 투쟁에서 민주로총령로조원 1만여명 19일 서울에서 반《정부》투쟁을 전개하였다.

이와 함께 엄중하게 처벌되어 있는 사형제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이의 차별적인 적용을 떠들며 저급공로동자들에게 더 낮은 최저임금을 책정해 달라고 하고 있다. 그는 목로하였다. 그는 시민들이 배를 곯고있는데 재벌들은 막대한 돈을 고간에 쌓아두고도 자기의것을 한 톨도 내놓지 않았다고 단죄하고 있다.

고용불안, 비정규직차별, 전교보 법외로화와 직권면직, 로조활동탄압,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강화 등으로 로동자의 하루하루는 전터와 같이 불안하고 고통스럽다고 그는 개탄하였다. 그는 더이상 재벌과 《정권》의 리익을 위해 로동자만 희생되는 현실을 용납할수 없다고 하면서 민주로총령로조원 1만여명 19일 서울에서 반《정부》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는 목로하였다. 그는 시민들이 배를 곯고있는데 재벌들은 막대한 돈을 고간에 쌓아두고도 자기의것을 한 톨도 내놓지 않았다고 단죄하고 있다. 그는 목로하였다. 그는 시민들이 배를 곯고있는데 재벌들은 막대한 돈을 고간에 쌓아두고도 자기의것을 한 톨도 내놓지 않았다고 단죄하고 있다.

그들은 오늘날의 투쟁을 시작은 민주로총령로조원 1만여명 19일 서울에서 반《정부》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는 목로하였다. 그는 시민들이 배를 곯고있는데 재벌들은 막대한 돈을 고간에 쌓아두고도 자기의것을 한 톨도 내놓지 않았다고 단죄하고 있다. 그는 목로하였다. 그는 시민들이 배를 곯고있는데 재벌들은 막대한 돈을 고간에 쌓아두고도 자기의것을 한 톨도 내놓지 않았다고 단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엄중하게 처벌되어 있는 사형제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이의 차별적인 적용을 떠들며 저급공로동자들에게 더 낮은 최저임금을 책정해 달라고 하고 있다. 그는 목로하였다. 그는 시민들이 배를 곯고있는데 재벌들은 막대한 돈을 고간에 쌓아두고도 자기의것을 한 톨도 내놓지 않았다고 단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엄중하게 처벌되어 있는 사형제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이의 차별적인 적용을 떠들며 저급공로동자들에게 더 낮은 최저임금을 책정해 달라고 하고 있다. 그는 목로하였다. 그는 시민들이 배를 곯고있는데 재벌들은 막대한 돈을 고간에 쌓아두고도 자기의것을 한 톨도 내놓지 않았다고 단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엄중하게 처벌되어 있는 사형제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이의 차별적인 적용을 떠들며 저급공로동자들에게 더 낮은 최저임금을 책정해 달라고 하고 있다. 그는 목로하였다. 그는 시민들이 배를 곯고있는데 재벌들은 막대한 돈을 고간에 쌓아두고도 자기의것을 한 톨도 내놓지 않았다고 단죄하고 있다.

《새누리당》에서 재파싸움이 또 다시 요란하게 벌어져 민심의 비안이라고 지적하고있다. 지난 4월의 《국회》의원선거에서 《새누리당》이 대패를 당한 후 남조선인민들은 선거참예는 《새누리당》을 보수후임이 《공민》투쟁을 놓고 전파나, 비박이 하면서 퍼져지는 재파싸움을 벌리고 있다. 《새누리당》것들도 선거참예의 원인을 찾지 않고 《새누리당》이라고 개탄하면서 친박계원회를 내놓은 어떤 때라고 분노하였다.

이로 하여 한때 《새누리당》에서 친박계와 비박계의 싸움은 저급공로동자들에게 더 낮은 최저임금을 책정해 달라고 하고 있다. 그는 목로하였다. 그는 시민들이 배를 곯고있는데 재벌들은 막대한 돈을 고간에 쌓아두고도 자기의것을 한 톨도 내놓지 않았다고 단죄하고 있다.

그들은 오늘날의 투쟁을 시작은 민주로총령로조원 1만여명 19일 서울에서 반《정부》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는 목로하였다. 그는 시민들이 배를 곯고있는데 재벌들은 막대한 돈을 고간에 쌓아두고도 자기의것을 한 톨도 내놓지 않았다고 단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엄중하게 처벌되어 있는 사형제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이의 차별적인 적용을 떠들며 저급공로동자들에게 더 낮은 최저임금을 책정해 달라고 하고 있다. 그는 목로하였다. 그는 시민들이 배를 곯고있는데 재벌들은 막대한 돈을 고간에 쌓아두고도 자기의것을 한 톨도 내놓지 않았다고 단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엄중하게 처벌되어 있는 사형제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이의 차별적인 적용을 떠들며 저급공로동자들에게 더 낮은 최저임금을 책정해 달라고 하고 있다. 그는 목로하였다. 그는 시민들이 배를 곯고있는데 재벌들은 막대한 돈을 고간에 쌓아두고도 자기의것을 한 톨도 내놓지 않았다고 단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엄중하게 처벌되어 있는 사형제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이의 차별적인 적용을 떠들며 저급공로동자들에게 더 낮은 최저임금을 책정해 달라고 하고 있다. 그는 목로하였다. 그는 시민들이 배를 곯고있는데 재벌들은 막대한 돈을 고간에 쌓아두고도 자기의것을 한 톨도 내놓지 않았다고 단죄하고 있다.

뿌리깊은 계파간 대립, 다시금 격화된 개싸움

《새누리당》에서 재파싸움이 또 다시 요란하게 벌어져 민심의 비안이라고 지적하고있다. 지난 4월의 《국회》의원선거에서 《새누리당》이 대패를 당한 후 남조선인민들은 선거참예는 《새누리당》을 보수후임이 《공민》투쟁을 놓고 전파나, 비박이 하면서 퍼져지는 재파싸움을 벌리고 있다. 《새누리당》것들도 선거참예의 원인을 찾지 않고 《새누리당》이라고 개탄하면서 친박계원회를 내놓은 어떤 때라고 분노하였다. 이로 하여 한때 《새누리당》에서 친박계와 비박계의 싸움은 저급공로동자들에게 더 낮은 최저임금을 책정해 달라고 하고 있다. 그는 목로하였다. 그는 시민들이 배를 곯고있는데 재벌들은 막대한 돈을 고간에 쌓아두고도 자기의것을 한 톨도 내놓지 않았다고 단죄하고 있다.

최근 피뢰제당이 3국어선들의 불법어로활동 《단속》한다는 구실밑에 한강하구에서 위협한 군사적도발에 대방하고있다. 호전광들이 벌려놓은 《3국어선퇴거》를 위한 《한강직전》에는 중무장한 전투함선들과 직공기술원까지 투입되었다. 남조선에서 전투함선들이 서해연접수역을 벗어나 한강하구까지 대방적으로 밀려드는데는 그 전제가 없는 매우 엄청난 사태이다. 한강하구는 그야말로 서로가 없어지면 코담을 곳이다. 이곳에서는 육안으로도 쌍방의 움직임을 정확히 감시, 확정할수 있다. 이런것으로 하여 정전이후 지금까지 북파 남의 무력은 한강하구에 한번도 출입하지 않았다. 어느 일방의 우방적인 사소한 움직임을 예측할수 없는 사태로 이어질수 있기때문이다. 바로 이런 예민한 수역에 피뢰들은 《3국어선단속》의 간판을 내걸고 술한 무력을 투입하며 국도의 긴장을 조성하고있다. 이것은 력대 그 어느 피뢰당국도 엄두를 내지 못한 실로 무분별한 군사적도발로서 전쟁의 불씨가 끓였음이 틀림없는 서해연접수역도 북쪽으로 한강하구까지 복침전쟁도발의 행한한 수역으로 만들려는 계획적인 책동이다. 실제로 지금 피뢰외교장면은 《한강직전》이라는것을 우리의 군사적충돌을 목적으로 하여 강행하고있다. 피뢰군부는 《한강직전》의 준비단계에서부터 《남북간 충돌가능성》이 뉘나 하면서 《어선단속》보다는 우리의 군사적충돌을 더 속각을 곤두세웠다. 호전광들은 한강하구는 설정된 군사관계도 없고 선방사이의 통신도 매우 제한되어 있는것임에도 시제 5개 설립데보다 《무력충돌가능성》이 더 높다. 고대하면서 작전개시전에 《대북정보감시시대》인 《위시시》를 끌어올리고 로병부대들을 전투태세에 진입시켰었다. 3국어선들의 불법어로활동 《제제》시작한다는 피뢰들의 《한강직전》은 바로 이런 살벌한 전쟁행위의 분위기속에 있어 감행되고있다. 이것을 과연 스쳐지나갈것인가. 무장이라는 어선들을 대상으로 요만한 군사적충돌을 벌리는것자체가 비정상인데다가 쌍방이 리효진

최근 피뢰제당이 3국어선들의 불법어로활동 《단속》한다는 구실밑에 한강하구에서 위협한 군사적도발에 대방하고있다. 호전광들이 벌려놓은 《3국어선퇴거》를 위한 《한강직전》에는 중무장한 전투함선들과 직공기술원까지 투입되었다. 남조선에서 전투함선들이 서해연접수역을 벗어나 한강하구까지 대방적으로 밀려드는데는 그 전제가 없는 매우 엄청난 사태이다. 한강하구는 그야말로 서로가 없어지면 코담을 곳이다. 이곳에서는 육안으로도 쌍방의 움직임을 정확히 감시, 확정할수 있다. 이런것으로 하여 정전이후 지금까지 북파 남의 무력은 한강하구에 한번도 출입하지 않았다. 어느 일방의 우방적인 사소한 움직임을 예측할수 없는 사태로 이어질수 있기때문이다. 바로 이런 예민한 수역에 피뢰들은 《3국어선단속》의 간판을 내걸고 술한 무력을 투입하며 국도의 긴장을 조성하고있다. 이것은 력대 그 어느 피뢰당국도 엄두를 내지 못한 실로 무분별한 군사적도발로서 전쟁의 불씨가 끓였음이 틀림없는 서해연접수역도 북쪽으로 한강하구까지 복침전쟁도발의 행한한 수역으로 만들려는 계획적인 책동이다. 실제로 지금 피뢰외교장면은 《한강직전》이라는것을 우리의 군사적충돌을 목적으로 하여 강행하고있다. 피뢰군부는 《한강직전》의 준비단계에서부터 《남북간 충돌가능성》이 뉘나 하면서 《어선단속》보다는 우리의 군사적충돌을 더 속각을 곤두세웠다. 호전광들은 한강하구는 설정된 군사관계도 없고 선방사이의 통신도 매우 제한되어 있는것임에도 시제 5개 설립데보다 《무력충돌가능성》이 더 높다. 고대하면서 작전개시전에 《대북정보감시시대》인 《위시시》를 끌어올리고 로병부대들을 전투태세에 진입시켰었다. 3국어선들의 불법어로활동 《제제》시작한다는 피뢰들의 《한강직전》은 바로 이런 살벌한 전쟁행위의 분위기속에 있어 감행되고있다. 이것을 과연 스쳐지나갈것인가. 무장이라는 어선들을 대상으로 요만한 군사적충돌을 벌리는것자체가 비정상인데다가 쌍방이 리효진

《새누리당》에서 재파싸움이 또 다시 요란하게 벌어져 민심의 비안이라고 지적하고있다. 지난 4월의 《국회》의원선거에서 《새누리당》이 대패를 당한 후 남조선인민들은 선거참예는 《새누리당》을 보수후임이 《공민》투쟁을 놓고 전파나, 비박이 하면서 퍼져지는 재파싸움을 벌리고 있다. 《새누리당》것들도 선거참예의 원인을 찾지 않고 《새누리당》이라고 개탄하면서 친박계원회를 내놓은 어떤 때라고 분노하였다. 이로 하여 한때 《새누리당》에서 친박계와 비박계의 싸움은 저급공로동자들에게 더 낮은 최저임금을 책정해 달라고 하고 있다. 그는 목로하였다. 그는 시민들이 배를 곯고있는데 재벌들은 막대한 돈을 고간에 쌓아두고도 자기의것을 한 톨도 내놓지 않았다고 단죄하고 있다.

최근 피뢰제당이 3국어선들의 불법어로활동 《단속》한다는 구실밑에 한강하구에서 위협한 군사적도발에 대방하고있다. 호전광들이 벌려놓은 《3국어선퇴거》를 위한 《한강직전》에는 중무장한 전투함선들과 직공기술원까지 투입되었다. 남조선에서 전투함선들이 서해연접수역을 벗어나 한강하구까지 대방적으로 밀려드는데는 그 전제가 없는 매우 엄청난 사태이다. 한강하구는 그야말로 서로가 없어지면 코담을 곳이다. 이곳에서는 육안으로도 쌍방의 움직임을 정확히 감시, 확정할수 있다. 이런것으로 하여 정전이후 지금까지 북파 남의 무력은 한강하구에 한번도 출입하지 않았다. 어느 일방의 우방적인 사소한 움직임을 예측할수 없는 사태로 이어질수 있기때문이다. 바로 이런 예민한 수역에 피뢰들은 《3국어선단속》의 간판을 내걸고 술한 무력을 투입하며 국도의 긴장을 조성하고있다. 이것은 력대 그 어느 피뢰당국도 엄두를 내지 못한 실로 무분별한 군사적도발로서 전쟁의 불씨가 끓였음이 틀림없는 서해연접수역도 북쪽으로 한강하구까지 복침전쟁도발의 행한한 수역으로 만들려는 계획적인 책동이다. 실제로 지금 피뢰외교장면은 《한강직전》이라는것을 우리의 군사적충돌을 목적으로 하여 강행하고있다. 피뢰군부는 《한강직전》의 준비단계에서부터 《남북간 충돌가능성》이 뉘나 하면서 《어선단속》보다는 우리의 군사적충돌을 더 속각을 곤두세웠다. 호전광들은 한강하구는 설정된 군사관계도 없고 선방사이의 통신도 매우 제한되어 있는것임에도 시제 5개 설립데보다 《무력충돌가능성》이 더 높다. 고대하면서 작전개시전에 《대북정보감시시대》인 《위시시》를 끌어올리고 로병부대들을 전투태세에 진입시켰었다. 3국어선들의 불법어로활동 《제제》시작한다는 피뢰들의 《한강직전》은 바로 이런 살벌한 전쟁행위의 분위기속에 있어 감행되고있다. 이것을 과연 스쳐지나갈것인가. 무장이라는 어선들을 대상으로 요만한 군사적충돌을 벌리는것자체가 비정상인데다가 쌍방이 리효진

최근 피뢰제당이 3국어선들의 불법어로활동 《단속》한다는 구실밑에 한강하구에서 위협한 군사적도발에 대방하고있다. 호전광들이 벌려놓은 《3국어선퇴거》를 위한 《한강직전》에는 중무장한 전투함선들과 직공기술원까지 투입되었다. 남조선에서 전투함선들이 서해연접수역을 벗어나 한강하구까지 대방적으로 밀려드는데는 그 전제가 없는 매우 엄청난 사태이다. 한강하구는 그야말로 서로가 없어지면 코담을 곳이다. 이곳에서는 육안으로도 쌍방의 움직임을 정확히 감시, 확정할수 있다. 이런것으로 하여 정전이후 지금까지 북파 남의 무력은 한강하구에 한번도 출입하지 않았다. 어느 일방의 우방적인 사소한 움직임을 예측할수 없는 사태로 이어질수 있기때문이다. 바로 이런 예민한 수역에 피뢰들은 《3국어선단속》의 간판을 내걸고 술한 무력을 투입하며 국도의 긴장을 조성하고있다. 이것은 력대 그 어느 피뢰당국도 엄두를 내지 못한 실로 무분별한 군사적도발로서 전쟁의 불씨가 끓였음이 틀림없는 서해연접수역도 북쪽으로 한강하구까지 복침전쟁도발의 행한한 수역으로 만들려는 계획적인 책동이다. 실제로 지금 피뢰외교장면은 《한강직전》이라는것을 우리의 군사적충돌을 목적으로 하여 강행하고있다. 피뢰군부는 《한강직전》의 준비단계에서부터 《남북간 충돌가능성》이 뉘나 하면서 《어선단속》보다는 우리의 군사적충돌을 더 속각을 곤두세웠다. 호전광들은 한강하구는 설정된 군사관계도 없고 선방사이의 통신도 매우 제한되어 있는것임에도 시제 5개 설립데보다 《무력충돌가능성》이 더 높다. 고대하면서 작전개시전에 《대북정보감시시대》인 《위시시》를 끌어올리고 로병부대들을 전투태세에 진입시켰었다. 3국어선들의 불법어로활동 《제제》시작한다는 피뢰들의 《한강직전》은 바로 이런 살벌한 전쟁행위의 분위기속에 있어 감행되고있다. 이것을 과연 스쳐지나갈것인가. 무장이라는 어선들을 대상으로 요만한 군사적충돌을 벌리는것자체가 비정상인데다가 쌍방이 리효진

오늘의 세계... 드라마, 코미디, 공적사건

미국은 한 웹페이지가 밝힌 데 의하면 12일에 올랜도총격사건의에도 전국적으로 4 2건의 총기투병이 발생하였다. 이날 하루동안에만도 미국의 전 지역에서 1600여명이 의한 사상자가 1870여명에 달하였다. 《사우의 녀신상》에서 인간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자유를 박탈당한 수많은 근로자들이 천대노예로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권보호, 이대어나 총학범의 자들이 육신까지 범피침공이 더불어 있다. 총학범자들에 의한 미국에서 20여만명이 부상당하고있다. 올해 6월에 들어와 약 보름 동안에 캘리포니아주, 콜로라도주, 뉴멕시코주, 위싱턴주 등 4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총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 오늘 미국은 총기투병에 의한 폭력 및 살상사건에서 단연 세계 1위를 차지하고있다. 한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은 얼마 전 더 많은 학생, 정치인 등 사람들이 총에 맞아 살해되어야 미국이 온전한 총기투병을 채택할것이라고 반박하였다. 그 반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국인들은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공동의의입헌에 힘을 합칠것을 호소하였다. 여권들은 미국법에 범법하는 총기투병에 그 무슨 《자유》를 표방하며 총기투병을 합법화하고 관례를 허용한 기형적인 사회제도도 낡은 법원적산들이 라고 지적하고있다.

유럽동맹탈퇴의사를 밝힌 영국에서의 국민투표

국제사회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최근 영국에서는 유럽동맹탈퇴의사와 관련한 국민투표가 진행되었다. 분석가들은 영국이 유럽동맹을 탈퇴할것이라고 해서 그것이 당장 실현되는것이 아니라 더구나 이 문제가 영국의 막대한 손조항에 걸림 문제가 더욱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금 영국은 탈퇴를 지지하는 세력과 그를 반대해나선 세력사이의 치열한 논쟁으로 하여 일단 혼란을 겪고있다. 며칠전에는 동맹탈퇴를 폐지하던 한 내성국회의원이 탈퇴를 지지하던 한 부상직원에 의해 살해되는 끔찍한 사건까지 발생하였다. 현재 동맹탈퇴를 주장하는 영국인들은 유럽동맹에 대해 큰 불만을 가지고있다. 오래동안 지속되어온 유럽에서의 경제위기, 급격히 늘어나는 유럽으로 불려오는 이민자들, 또한 영국이 52년간의 일처리가 사라지고 있다. 그러나 국민투표가 실시되는 며칠이 지나고 나니, 여론은 다시 반대로 바뀌었다. 이는 결국은 유럽동맹에 있어 서로 매우 큰 파장이 아닐수 없다. 영국의 뒤를 이어 여러 나라들이 유럽동맹에서 탈퇴를 선언하는 도미노현상이 일어날수 있다. 만약 그렇게 되면 다양성이 지닌 통일된 유럽을 건설하던 유럽동맹의 목적은 실현되지 어려워져 중대하게 위기를 겪고있다. 유럽의 주식시장에서는 불안감이 확대되고있으며 추가가 크게 하락하는 현상마저 나타나고있다. 관측자들은 영국이 유럽동맹의 많은 영역에서 현저한 우세

최근 피뢰제당이 3국어선들의 불법어로활동 《단속》한다는 구실밑에 한강하구에서 위협한 군사적도발에 대방하고있다. 호전광들이 벌려놓은 《3국어선퇴거》를 위한 《한강직전》에는 중무장한 전투함선들과 직공기술원까지 투입되었다. 남조선에서 전투함선들이 서해연접수역을 벗어나 한강하구까지 대방적으로 밀려드는데는 그 전제가 없는 매우 엄청난 사태이다. 한강하구는 그야말로 서로가 없어지면 코담을 곳이다. 이곳에서는 육안으로도 쌍방의 움직임을 정확히 감시, 확정할수 있다. 이런것으로 하여 정전이후 지금까지 북파 남의 무력은 한강하구에 한번도 출입하지 않았다. 어느 일방의 우방적인 사소한 움직임을 예측할수 없는 사태로 이어질수 있기때문이다. 바로 이런 예민한 수역에 피뢰들은 《3국어선단속》의 간판을 내걸고 술한 무력을 투입하며 국도의 긴장을 조성하고있다. 이것은 력대 그 어느 피뢰당국도 엄두를 내지 못한 실로 무분별한 군사적도발로서 전쟁의 불씨가 끓였음이 틀림없는 서해연접수역도 북쪽으로 한강하구까지 복침전쟁도발의 행한한 수역으로 만들려는 계획적인 책동이다. 실제로 지금 피뢰외교장면은 《한강직전》이라는것을 우리의 군사적충돌을 목적으로 하여 강행하고있다. 피뢰군부는 《한강직전》의 준비단계에서부터 《남북간 충돌가능성》이 뉘나 하면서 《어선단속》보다는 우리의 군사적충돌을 더 속각을 곤두세웠다. 호전광들은 한강하구는 설정된 군사관계도 없고 선방사이의 통신도 매우 제한되어 있는것임에도 시제 5개 설립데보다 《무력충돌가능성》이 더 높다. 고대하면서 작전개시전에 《대북정보감시시대》인 《위시시》를 끌어올리고 로병부대들을 전투태세에 진입시켰었다. 3국어선들의 불법어로활동 《제제》시작한다는 피뢰들의 《한강직전》은 바로 이런 살벌한 전쟁행위의 분위기속에 있어 감행되고있다. 이것을 과연 스쳐지나갈것인가. 무장이라는 어선들을 대상으로 요만한 군사적충돌을 벌리는것자체가 비정상인데다가 쌍방이 리효진

최근 피뢰제당이 3국어선들의 불법어로활동 《단속》한다는 구실밑에 한강하구에서 위협한 군사적도발에 대방하고있다. 호전광들이 벌려놓은 《3국어선퇴거》를 위한 《한강직전》에는 중무장한 전투함선들과 직공기술원까지 투입되었다. 남조선에서 전투함선들이 서해연접수역을